

경제

DJ센터 가을테마는 '그린&휴머니티'

호남 컨벤션산업의 중추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에서 올 가을 기후와 환경, 건축, 식품, 자동차와 로봇 등을 주제로 한 30여개의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기후 환경·식품·차·로봇 주제 30여 전시회 개최

최첨단 산업정보 제공...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DJ센터는 올 가을 전시회에서 녹색산업, 로봇산업 등 최첨단 산업 정보를 가능한 많이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전은 세계 최대·최고 권위의 국제 전시연합(UFI) 인증과 2008년 무역 전시회 인증을 지방식품전 최초로 획득하기도 했다.

▲휴머니티 =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2009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은 신종플루 여파로 취소되기 직전 회생했다.

주요 전시제품은 전기·전자 및 제어시스템, 텔레매틱스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서비스 로봇, 자동차 부품 등이다.

11월 26일부터 3일간은 '2009 광주국제실버박람회' 등이 계속된다.

■2009 하반기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 전시회

Table with 3 columns: 행사명, 행사기간, 주최/주관. Lists various exhibitions from September to December.

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다뤄지며, 일본 등 각 선진국의 노인정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예장터 등이 운영된다. DJ센터 박람회 홍보팀장은 "신종 플루로 인해 예정된 몇 가지 주요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고 업체들도 바라는 전시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이들 전시회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가 VIP연회에 미향 광주의 정취를 한껏 살린 한정식을 처음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DJ센터 한식메뉴 "옹거니!"

김치·버섯볶음 등 '남도의 맛'에 방문객 호평

이에 따라 2주간 메뉴 선정 및 10명으로 구성된 맛 평가단의 심사 등을 거쳐 한정식 메뉴 '중장'을 완성했다.

에피타이지, 죽, 전, 메인, 후식 등으로 기본 골격을 구성했다.

의 핵심인 메인코스는 김치, 버섯볶음, 메로, 갈비찜, 식사, 국으로 간소화했다.

금액은 1인당 5만5천원, 최고 7

만원까지 나가는 양식에 비해 저렴한 한데다, 한정식으로 대표되는 광주 음식을 전국 및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앙파크호텔 마케팅부 송종근 차장은 "연회장에서 한정식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로 충분히 도전해 볼만했다"며 "앞으로 계속 메뉴 개발에 나서 광주를 찾는 국내외 인사에게 한정식의 정수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기술 인재 키운다

터(센터장 문종하) 개소식을 가졌다.

전남대는 22일 공과대 코스모스에서 김은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LG이노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인재양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영산강 사업' 턴키공사 설계평가 착수

평가위원 공개... 구간별 현장 답사 나서

정부가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공사의 설계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턴키 평가위원은 국토부가 직접 선정한 대학교수와 연구원, 국토부 공무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 담당자 등 72명으로 구성됐다.

영산강 2·6공구에 대한 설계 심의는 12명이 맡는다. 평가 위원은 ▲고려대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정현고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

부 교수 ▲오경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교수 등 민간 전문가 4명과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정채교 실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방송기 건축디자인과장 ▲안정훈 도시디자인과장 ▲수자원공사 서울성수도사업처 하수도팀장 ▲한국토지공사 김선미 시설사업처(조경) ▲한국도로공사 최원환 ▲시설안전공단 장범수 ▲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씨 등 해당분야 실무 공무원들이다.

위원들은 23일 오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모여 브리핑을 받고 현장 답사에 나서는데 본격적인 설계 평가를 시작하며 27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이틀동안 합숙하며 최종 건설사별 설계평가 점수를 매긴다.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설계평가가 끝나는데로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실시한 뒤 공구별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공사비가 6공구 3천362억원, 2공구 1천487억원으로 수주 여하에 따라 건설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초대형공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 농산물 원산지 둔갑 '꼼짝마'

광주세관 '남도특산품 브랜드 지킴이단' 발족

광주본부세관은 22일 추석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위장해 판매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남도특산품 브랜드 지킴이단'을 구성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본부세관 상 황실에서 세관별 특산물 전문가와 민관협의회를 갖고 지난 4월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특산물 생산자단체 10

명을 명에 세관원으로 위촉, 이들을 포함한 '남도특산품 브랜드 지킴이단'을 발족했다.

'남도특산품 브랜드 지킴이단'은 그동안의 원산지 위반 행위지벌 유통 동향 분석 및 수입업체 세제자료,

유통거래 추적 분석자료 등을 통해 민관 합동 입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Box containing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718.88 (+23.38), 코스닥지수 536.97 (+3.87), 금리 (국고채 3년) 4.49% (+0.06), 원·달러 환율 1,203.80원 (-0.6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Gwangju All Area Building Specialist), listing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for sale or leas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offering servic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nd loans.